



1분기 세계 휴대폰 출하량 29.3% 증가

올해 1분기 세계 휴대폰 출하량이 카메라폰과 컬러 액정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C넷이 시장조사기관 IDC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IDC가 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세계 휴대폰 판매는 중급형 판매 호조에 힘입어 작년 1분기보다 29.3% 증가했고 판매액은 1억 5,270만달러를 기록했다. 노키아의 시장 점유율은 중급형 제품의 부족으로 작년 4분기보다 19.2% 떨어진 반면 모토로라와 삼성은 카메라폰 등의 판매 증가로 시장 점유율이 각각 16.6%, 13.1% 상승했다.

한편 IDC는 연말까지 세계 휴대폰 가입자수가 15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말기 판매대수도 2004년엔 5억9,500만대, 2008년엔 8억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5개국 '거대EU' IT시장 열린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이 5월 1일부터 동구권 10개국을 포함해 25개국으로 확대되면서 '거대 EU' 정보 기술(IT) 시장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우선 IT수요의 근간이 되는 인구 면에서 거대EU는 세계 최강 IT강국이라는 미국의 2억9,700만명보다 1억 5,000만명 정도가 많다. 이런 요인 등을 이유로 들어 시장조사기관인 IDC는 거대EU의 IT지출이 향후 수년간 연간 10%씩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로 지목되는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R&D), 그리고 기업환경 등 측면에선 '거대EU'는 아

직 미국에 한참 뒤처진다는 게 지배적 평가다. IDC는 이 때문에 새 EU가 IT 분야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통해 '미국 추월'에 나서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는데 특히 거대EU가 전자정부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공공분야 풍속도를 바꾸어 놓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새 EU에 포함될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키프로스 등의 기업들이 국경 없는 무역전쟁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고객관계관리(CRM) 같은 전산 소프트웨어를 잇따라 도입하면서 경쟁력 향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IDC는 예상하고 있다.

가트너 역시 "동유럽 IT시장이 유럽연합(EU)에 편입됨에 따라 오는 2007년까지 성장속도가 서유럽보다 3배 정도 빠를 것"이라며 특히 외국 직접투자(FDI) 자금이 몰리면서 IT 투자도 덩달아 활성화돼 이들 지역의 IT지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트너 엔드리 디 마이오 수석 부사장은 "동유럽 국가들이 EU에 편입되면서 이들 지역의 IT 솔루션 공급가격이 낮아지는 대신 서비스 질은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특히 고객관계관리(CRM) 같은 소프트웨어의 판매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새로 편입하는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은 '넘어야 할 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신규 회원 가입이 이뤄진 후 첫 6개월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만일 이들 동유럽국가들이 정치 불안만 제대로 해소한다면 유럽 IT 시장에 호재로 작용, 유럽이 세계 IT시장에서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만, 세계 PC공장에서 핵심 부품 공장으로

일본 전파신문은 대만이 민관 합동으로 PC용 모니터, 노트북 PC용 디스플레이 등으로 각광받고 있는 평판디스플레이(FPD) 생산 체제 구축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특히 각종 재료 부품 및 응용 제품 일괄 생산 체제도 구축 중이어서 조만간 대만이 PC에 이어 디스플레이산업의 거대 생산국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공업연구원 산하 산업경제정보센터는 FPD 부품의 자국내 생산이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만에선 지난 98년부터 작년까지 TFT LCD 관련업체들이 4,500억 대만 달러를 투자해 대형 유리기관용 FPD 대량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 경제부 컬러이미징산업추진사무소는 "FPD의 국내 일괄 생산이 가능한 산업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오는 2006년에 FPD 산업에서만 1조 대만 달러 이상의 생산고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추진사무소는 "현재 부품 공급에서는 국내 업체끼리의 협조 체제가 원활해 산업 발전의 기초 기반이 완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만 디스플레이서치사에 따르면 FPD 수요는 대만이 강점을 가진 PC 및 공업 제품 조립이 중심이었으나 최근 휴대폰 및 디지털카메라 등 개인 성향의 모바일 기기와 AV(영상·음향)기기의 새로운 시장이 생기면서 크게 신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만이 모바일기기와 20인치 이하 TV 등에서 이미 수탁 생산 실적을 올리고 있다"며 "각 업체들의 대형 LCD 패널 공장도 잇따라 완성됨에 따라 조만간 대형 TV



제조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대만은 FPD에 이어 컬러필터, 편광판, 유리기관, 백라이트, 드라이버IC 등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부품들도 국내 생산하고 있다. 타이페이시 주변과 도원, 신죽공업단지 등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대만업체들과 함께 세계 주요 업체들의 제품 조달 사무소, CPU, 메모리, HDD 등 핵심 부품 제공업체들의 사무소도 이 곳에 몰려들고 있다.

아태 1분기 PC판매 16% 증가

지난 1분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PC 판매가 작년동기보다 16% 증가한 809만대를 기록했다고 아시아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이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의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휴렛패커드(HP)가 이 기간 중 중국의 레노보(9.3%)를 따돌리고 9.7%를 차지하며 업계 1위를 기록했다. 이들에 이어 IBM이 6.8%로 3위, 그리고 델이 6.6%로 4위를 달성했다.

한편 또 다른 시장조사기관인 IDC는 지난달 말 일본을 제외한 아태지역의 1분기 PC 판매량에 대해 "작년 동기보다 16% 늘어난 740만대"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IDC 조사에선 가트너와 달리 레노보가 10.9%의 점유율로 10.8%의 HP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면서 업계 1위를 보였다.

'와이파이폰' 美 이통시장 위협

무선랜 환경을 이용해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 일명 '와이파이폰'(Wi-Fi phone)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기존 이동통신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와이파이폰은 핫스팟 지역내 무선

인프라를 이용해 음성통화는 물론 데이터 통신까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어 최근 미국의 대형병원과 대학교, 도서관 등에서 앞다퉈 채택하는 추세다.

AP통신은 값싼 VoIP서비스가 우선전화시장을 잠식하듯이 와이파이폰도 이동통신업계의 수익구조에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도시에 우후죽순 들어서 있는 핫스팟 지역이 중첩되면서 이동중에도 무선랜 접속이 끊기지 않는 '핫존'이 갈수록 늘어나 와이파이폰 수요에 불을 당기고 있다.

현재 미국에 설치된 핫스팟은 총 1만8,000여개. 고객입장에서 핫스팟이 늘어날수록 저렴한 와이파이폰을 선호하기 마련이고 값비싼 휴대폰 요금을 지불할 이유는 점점 줄어들어 가는 셈이다.

우선 모토로라는 기존 휴대폰 단말기에 모바일 인터넷 전화기능을 추가한 와이파이폰을 다음달 뉴저지의 일부 지역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 단말기는 평소에는 일반 휴대폰처럼 GSM 통신망을 이용하다가 무선랜 접속이 가능한 핫스팟 지역으로 들어가면 끊기지 않고 인터넷 전화로 전환된다.

모토로라는 와이파이폰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좋을 경우 하반기부터 미국 전역에 와이파이폰을 출시한다는 계획이어서 이통서비스업체가 바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와이파이 통신장비업체 보체라는 미국내 65개 종합병원과 도서관, 대형소매점에 사내통신용으로 개발한 와이파이폰을 판매, 호평을 받고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 엘카미노 병원에서는 무전기처럼 작동하는 와이파이폰을 전 직원에게 지급한 결과 긴급한 호출이나 수술준비 등에 따르는 사내 통화건수가 70%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 장거리 전화회사 IDT는 무선 PDA를 와이파이폰으로 전용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하반기부터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미국 동부의 다투머

스 대학은 학교 구내에서 무료 장거리 통화를 할 수 있는 와이파이폰 프로그램을 전교생에게 배포했다.

와이파이폰의 확산추세는 지난해 1,880억달러의 매출로 사상최대의 호황을 누린 미국 이통서비스업체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변화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체들의 와이파이폰 도입이 본격화될 경우 미국 이통서비스업체는 적잖은 수익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 LCD구동용 IC 증산 경쟁

르네사스테크놀로지·세이코엡슨 등 일본의 중견 반도체업체들이 LCD 구동용(드라이버) IC의 증산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니혼게이아이 신문이 보도했다.

LCD구동용 드라이버는 관련 업체들간 치열한 경쟁으로 가격 저하 등의 위험이 따르는 분야지만 일본 업체들은 최근 휴대폰이나 LCD TV 용을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생산 설비 증강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르네사스테크놀로지는 카메라폰 등에 사용되는 박막트랜지스터(TFT) LCD용 부품을 중심으로 지난 3월 기준으로 220만개였던 드라이버의 월 생산량을 7~9월 2,700만개로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 생산 거점을 고후사업소 등 현재의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또 세계 칼러 휴대폰 보급률이 지난해 35%에서 올해는 60%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싱가포르와 독일 등 해외 공장에서도 TFT LCD구동 IC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이코엡슨은 약 100억엔을 투자해 LCD 드라이버를 제조하는 국내 제조 거점의 생산라인을 확장, 직경 200mm 웨이퍼 기준으로 최대 월 4만장인 생산량을 올 하반기 중 6만장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주로 TFT 구동 IC를 중심으로 증산할 계획이다.

오키전기공업은 노트북 PC와 LCD TV에 사용되는 TFT LCD드라이버의 증산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출하 규모를 전년보다 50% 증가한 1억1000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현 생산거점인 미야자키오키전기에 이어 금년 중 미야기오키전기에서도 생산라인을 추가로 가동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특히 대화면 TV용 제품의 경우 경쟁업체가 상대적으로 적어 가격 하락 위험이 낮다고 보고 22인치 이상 대화면용 제품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 TCL, 알카텔 휴대폰 사업 인수

중국 유수의 가전업체인 TCL이 프랑스 통신장비업체 알카텔의 휴대폰 사업부문을 인수, 유럽 휴대폰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TCL은 지난해 11월 프랑스 톰슨과 세계 최대의 TV제조 합작사를 설립한 지 반년 만에 또 다른 프랑스 대기업을 핵심사업을 인수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협상에 따라 TCL과 알카텔은 각각 5500만 유로와 4500만 유로를 투자해 오는 8월까지 순자산 1억 유로의 휴대폰 합작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TCL은 우선 휴대폰 합작사의 지분 55%를 확보하고 향후 5년 내 알카텔의 나머지 지분 45%까지 전량 인수할 계획이다. 이 회사 대변인은 새로 설립할 휴대폰 합작사의 경영과 기존 중국내 휴대폰 사업부문은 엄격히 분리되며 유럽시장에서 알카텔 브랜드와 현지 판매 네트워크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알카텔은 세계 휴대폰시장 8위, TCL은 10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합작을 계기로 TCL은 연간 휴

대폰 생산량 1900만대, 세계 7위 업체로 부상할 전망이다. 당초 알카텔은 휴대폰 사업부문을 중국 난징팬더전자에 매각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TCL과 손잡게 됐다. 알카텔은 회사 매출에서 비중이 5%에 불과하고 적자를 기록 중인 휴대폰 사업을 TCL에 넘긴 후 통신장비 등 기존 핵심 사업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TCL이 알카텔의 휴대폰 사업인수를 통해 지나친 출혈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중국 시장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보다폰, 프랑스텔레콤, T-모바일 등 유럽계 통신업체를 대상으로 한 납품경쟁에서 유리할 위치에 오를 것으로 기대되며 알카텔이 보유한 각종 첨단통신기술에 보다 쉽게 접근해 차세대 휴대폰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TCL의 리둥성 회장은 잇따른 해외기업과의 제휴 합병에 대해 "TCL을 향후 10년내 TV와 휴대폰분야에서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1999년 휴대폰 사업에 진출한 TCL은 지난해 단말기 생산량 1000만대, 중국시장 점유율 12%로 3위 업체로 성장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는 TCL그룹이 복잡한 지배구조를 정리하기 위해 오는 6월경 자사 휴대폰 사업을 분사시켜 홍콩 증시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히타치, 휴대폰 게임용 IC칩 개발

일본 히타치제작소가 컴퓨터 게임의 동영상을 휴대폰에서도 표시할 수 있는 IC칩을 개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번에 개발한 IC칩은 게임 등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자바기술'을 채

택해 휴대폰에서도 고속의 동영상 처리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휴대폰에서는 매초 10프레임의 동영상 밖에 처리할 수 없었지만 신형 LSI는 매초 46프레임의 동영상을 표시할 수 있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2(PS2)와 거의 같은 수준의 동영상을 볼 수 있다고 히타치 측은 주장했다.

히타치는 향후 이 칩을 휴대폰용 동영상 처리 LSI와 일원화해 NTT 도코모의 3G인 '포마' 등에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HP, RFID 태그 부착 프린트 첫 출시

휴렛패커드(HP)가 유통혁명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전자태그(RFID) 칩을 장착한 제품을 처음으로 출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HP는 29일(미국 시각) 월마트의 텍사스 매장에 공급한 잉크젯 프린트와 카트리지 제품에 전자태그 칩을 처음으로 부착했다. 미국의 대표적 대형매장인 월마트는 자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내년 1월까지 RFID 태그를 부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HP의 RFID서비스 분야를 맡고 있는 루션 러펠린은 "연말까지 대형소매점에 공급하는 제품중 약 80~85%가 RFID 태그를 부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HP가 지난 3년간 RFID 실험을 해왔으며 "HP는 미국내 두개 지역과 브라질 한개 지역에서 RFID태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합쳐서 매일 1~5테라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펠린은 "바코드 시스템의 정확도가 92~97%인데 반해 RFID 태그는 거의 100% 정확성을 갖고 있다"며 "태그 가격이 다양하지만 HP는 태그당 30센트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